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있어서 모범의 기능

고재수*

I. 서론

지난 해에 캄펜(Kampen)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오만(Ohmann) 교수님은 구속사적 설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그래서 설교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이 학술대회에서 나오시는 다시 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¹⁾

그런데 이 학술대회에서 강의하도록 초청받았을 때 나는 그 주제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다루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즉 모범(example)이란 주제이다.

구속사적 설교방법은 전통적으로 모범적인 설교방법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모범이란 말에 집중하여 여러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구속사적 방법에서 반대하는 소위 모범이란 무엇이었는가? 또 성경에서는 모범이 전혀 나오지 않는가? 설교에서 본문의 요소를 모범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인가?

이 강연에서 나는 모범에 대한 이 같은 문제들을 좀 다루도록 시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모범이란 말 자체는 이미 복잡한 것이며 또 모범 문제를 연구할 수록 그 문제도 복잡하게 된다. 이 강연에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다룰 기회는 없을 것이지만 그 문제의 여러 면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다룰려고 한다. 모범 문제 그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설교함에 있어서 근본적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겠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소위 목회서신이

*캄펜신학교, 캄펜신학대학원 교의학전공, 현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1) 구속사적 설교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Greidanus,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Toronto: Wedge, 1970).

라고 불러주는 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서신들은, 열 두 사도 중에 속하지 않았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쓰여진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중 설교하는 일이 뚜렷한 것임은 분명하다.

딤편 4:13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고 말했다. 읽은 것이란 공적인 예배에서 읽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디모데는 성경을 봉독해야 했다. 이렇게 봉독하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눅4:16, 고후3:14에는 구약성경이, 골4:16, 살전5:27, 계1:3에는 바울의 서신과 계시록이 읽어졌다. 그렇다면 딤편4:13의 의미는 디모데가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예배에서 설명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권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²⁾

설교해야 하는 이 임무는 가르치는 것의 한 부분이다. 디모데와 디도같은 설교자가 맡은 핵심적 임무로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쉽게 볼 수 있다. 디모데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해야 하고(딤편 1:3 참고1:18),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기도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를 지적해야 했다(4:6). 그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명령해야 했으며(4:11), 그는 그 자신과 그의 가르침을 계속해야 했다(4:16). 또한 디모데는 늙은이를 권해야 했고(5:1),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야 했으며(6:2), 부한 자들을 명해야 했고(6:17), 부탁한 것을 지켜야 했다(6:20).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했다(2:15). 주님의 일꾼으로서 디모데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2:24), 온유하게 교훈해야 하며(2:25),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했다(4:2, 참고4:5).³⁾

디도도 또한 바른교훈에 합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했는데(2:1) 그것은 늙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종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2:2-10). 또한 그는 모든 권위로 권면하며, 책망해야 했다(2:15). 그는 복음을 강조해야 했다(3:8).

2) C.Bouma, *De Brieven vana den Apostel Paulus aan Timotheus en Titus* (KNTIV: Amsterdam: Bottenburg, 1942) p. 165 와 J.N.D. Kelly, *The Pastoral Epistles I & II Timothy, Titus* (BNTC: London: Adam & Charles Black, repr, 1976)p. 105.

3) 여기서 말씀이란 행6:4부터 자주 복음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목회서신에서의 이 말의 의미에 대하여는 J. van Burggen, *Vaste Grond onder de oeten. De Formule pistos ho logos in de Pastorale Brieven, in Beziield Verband. Opstellen aangeboden aan Prof. J. Kamphs* (Kampen: Van den Berg, 1984), pp. 38 ff. 특히 p. 43f를 참고하라.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가르쳐야만 했는가? 그 가르침은 딤편4:13의 말대로 봉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실이다. 디모데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했는데 딤편1:11에는 그 교훈이 바울에게 맡겨진 바 복음이라고 한다(참고4:6). 그것은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 온 구약성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딤편3:14-16, 참고1:5, 딤편4:6).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딤편6:3, 참고5:18) 바울의 말을(딤편1:11, 딤편1:13, 딤편1:3)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실들은 신약성경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가르침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들은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해야 했다(딤편2:2). 이처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선포되어야 할 내용은 구약성경과 예수와 사도들의 말씀 곧 신약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권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나는 Christianity Today지에서 그의 설교로 유명한 미국의 한 목회자에 관한 글을 읽었다. 그의 교회는 그가 봉사한 이후로 굉장한 성장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그의 설교의 몇 가지 원칙들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는 그가 자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연속설교를 했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그가 종교개혁 시대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연속설교를 했었는데 그 중에는 화란의 첫 제후인 오린지공(William of Orange)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에 화란에서 이주해 온 몇몇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지 화란사람에 대한 설교 때문에 그들은 그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⁴⁾

이 목회자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고 또 그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 사람에게 관한 설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모범으로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4) 잡지의 제 몇 호에서 읽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설교가 그다지 희귀한 것은 아니다. 피테 UGoethe), 실러(Schiller), 바그너(Wagner), 셰익스피어(Shakespeare)에 대한 설교도 있었다. S.Greidanus, *Sola Scriptura* p. 69 각주 77 참고. 또 여러 설교학자들은 성경밖의 사람들에 대한 설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S. Greidanus, *Sola Scriptura* p.59,217 참고.

에 반대되는 것이다. 역사 속에는 많은 모범적인 사람들이 살았지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 설교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고 성경 이외의 모범적인 사람을 설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모범설교에 대한 홀버다의 견해

홀버다(B.Holwerda, 1909-1952)는 '모범적'이라는 말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방법 아니면 모범적인 설교방법이라는 딜레마(dilemma)로 제시했다. 즉 역사적 성경본문을 다루는 방법은 모범적인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나중에 그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은 구속역사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그가 모범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의미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홀버다에 의하면 모범적인 방법은 성경역사를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하는 여러 종류의 개별적인 역사들로 변형시키는 것이다.⁶⁾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일들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그의 출발점으로 삼아 왜 이 일들이 모범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홀버다가 반대하는 것은 모범 그 자체는 아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홀버다는 성경의 역사적인 본문이 그것의 역사적인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오늘의 청중에게 적용되는 것을 거부한다.⁸⁾

이 점에서 모범적인 설교의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우정에 관한 모범이다. 그 우정은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한나는 한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한나처럼 평안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모범적 방법이 실패한 것을 본다. 만약 우리가 한나와

5) B. Holwerda, *De Heilshistorie in de Prediking*, in "...*Begonnen hebbende van Mozes...*" 2ed. (Kampen: Van den Berg, 1974) p. 82. 참고.

M.B. van't Veer는 이 dilemma를 받아들이면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을 택했다. *Christologische Prediking over de Historische Stof van het Oude Testament*, in R. Schippers (red.) *Van den Dienst des Woords*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44) p. 137.

6) B.Holwerda, *De Heilshistorie*, p. 82.

7) Ibid. p. 82.

8) Ibid. p. 85.

우리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 본다면 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한나는 그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또 한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진리는 아니다. 소위 모범적인 방법이 본문을 정당하게 다루는 것만은 아니다. —세번째 예로서는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을 파괴한 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⁹⁾ 모범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설교는 이처럼 종종 심리적인 내용 또는 도적적 교훈을 제시한다.

홀버다는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모범으로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대를 제기한다. 첫째는, 역사적인 본문은 사건에 관한 것이지 비유가 아닌데도 모범적 방법에서는 그것들이 단지 예화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¹⁰⁾ 목사는 먼저 일반적인 법칙을 강조하려고 결정한다. 예를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이것을 한나의 경우에서 모범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질문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예화로만 나오느냐는 것이다. 두번째 반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이야기의 관계가 무시된다는 것이다.¹¹⁾

예를들면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즉 사사가 될 사무엘의 탄생과는 무관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은 무시된 채로 본문은 마치 우리의 상황이 한나의 상황과 비슷한 것처럼 적용되고 있다.

세번째 반대는 본문 자체의 요소들이 이러한 접근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마태복음 11:1-6까지는 세례요한의 의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 20:24-29까지는 도마의 의심에 대한 것이다. 모범적인 방법으로 설교한다면 목사는 이 두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심들을 제거하셨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본문 그대로를 읽는다면 두 사람의 의심이 다른 종류의 것이며 따라서 그 해결책도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¹²⁾

9) 이 예들은 모두 M.B. van't Veer가 여러 설교집에서 모은 것들이다. *Christologische Prediking*, p.140 참고.

10) B.Holwerda, *De Heilshistorie*, p. 88, 92 참고.

필자는 Holwerda의 이 세가지 반대를 최선의 형태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실 이 세가지 반대는 아주 복잡하며 C.Trimp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심하게 비판했다. C. Trimp, *Heilsgeschiedenis en Prediking*. *Hervatting van een Onvoltooid Gesprek*. (Kampen: Van den Berg, 1986) 특히 pp. 93, 106.

11) B.Holwerda는 여기서 fragmentary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De Heilshistorie*, pp. 88f, 93.

12) Ibid. pp. 91ff. 여기 언급한 예는 Holwerda의 것이다.

홀버다가 모범적 설교방법을 비평하면서 성경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남은 질문은 홀버다가 왜 이러한 방법을 '모범적'이라고 불렀느냐는 것이다. 홀버다에 의하면 모범(exemplum)이란 말 자체는 역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비슷한 것들 중의 하나 혹은 비슷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 중에서 하나의 견본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¹³⁾

그러므로 홀버다가 모범적인 설교를 거부한 때는 그가 모범 그 자체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담당했던 역할로 부터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홀버다에 대한 트림프의 비평

캠편신학교의 직분학(실천신학)을 가르치는 트림프(C. Trimp) 교수는 지난해에 책을 한 권 발간했는데 거기서 그는 구속사적인 방법과 모범적인 방법의 설교에 관한 모든 논쟁을 비평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구속사적인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도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¹⁴⁾ 그러나 동시에 그는 구속사적인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몇가지 점에서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런 비판 중에 홀버다가 모범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그의 주된 관심의 하나이다.

우선 그는 홀버다가 모범에 대해 제시한 그 의미를 공격한다. 홀버다는 그 말이 비슷한 것들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트림프에 의하면 그 말의 뜻은 보다 넓다. 모범(exemplum)이란 말이 라틴어 'eximo' 즉 '어떤 것에서 하나를 취하라'란 동사에서 왔고 그 취해진 것은 전체의 성질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¹⁵⁾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필자가 화란의 친척으로부터 식료품이 든 소포를 하나 받았을 때 세관원은 이 물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또한 그는 혹시 나쁜 약품이 이 속에 들어 있지 않을까 의심한다. 그때 그는 그 소포 중 하나를 취하여 맛을 보고 그 소포 전체가 식료품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런 경우에 그 취해진 것이 모범(exemplum)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취해진 것은 전체의 성질을 보여주는 견본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범이란 경고하거나 그것을 따라 가도록 사람들을 권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모범이란 말 자체가 역사적인 발전과 역사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홀버다의 강조는 모범의 바른 의미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고 트림프

13) Ibid. p. 85.

14) C. Trimp. *Heilsgeschiedenis en Prediking*, pp. 72ff, 107.

15) Ibid, p. 75.

는 말한다.¹⁶⁾ 트림프에 의하면 역사란 예화요 권면이며 경고인 것이다.¹⁷⁾

그렇다면 모범적이란 말은 역사를 무시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의 모범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범이란 말은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로 사용되는 단순한 예화라는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¹⁸⁾

또한 트림프는 성경에서 모범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때 그는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언급한다. 홀버다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은 교리적인 설명에 대한 하나의 예화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 주고자 했고, 또 이러한 예로서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그 기자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역사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¹⁹⁾

트림프는 홀버다의 사상에 나오는 예화란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의 증거나 서류증명의 기능을 가진다. 그것들은 특성을 보여주는 모범들이다. 그것들에는 역사적인 차이가 무시되지도 않고 역사적 차이가 모범적인 기능을 약화시키지도 않는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우리를 경고하는 모범을 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도 우리를 경고하는 모범을 담고 있는 설명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차이가 나오지만(11절), 그것은 경고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례의 권능과(10:2)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나타남은(10:4) 보다 완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⁰⁾

트림프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첫째로 설교자가 노아나 아브라함 혹은 모세에 대해서 설교할 때 히브리서 11장의 접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갈등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모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구약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 사건에 대한 설교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설교는 그 내용과 구조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신 일(창12:4)에 대한 설교는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히브리서 12:8에 대한 설교와는 달라야 한다. 한편 창세기 12:4에 대해 설교할 때 설교자는 아브람을 믿음으

16) Ibid, p. 75.

17) Ibid, p. 76.

18) Ibid, p. 90.

19) B. Holwerda, *De Heilshistorie*, p. 95.

20) C. trimp, *Heilsgeschiedenis en Prediking*, pp. 92f.

21) Ibid, p. 93. 이 두번째의 것은 B. Holwerda도 지적한 것이다. *De Heilshistorie*, p. 88.

로 순종한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이 논쟁의 결과

이제 우리는 홀버다와 트림프의 연구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홀버다와 트림프는 모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성경에 제시된 사람들은 우리 시대와는 다른 특별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우리와 다른 직분을 가졌으며 우리와 다른 임무를 실행해야 했다. 또 그 중 대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역사에서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행하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홀버다는 그때 역사적 간격을 무시하는 설교방식을 모범적인 방법이라 부르겠다고 했다. 트림프는 이제 이전과 지금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접근이 옳지 않지만 그 방법을 모범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범적이란 옳은 성경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특이한 상황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기록된 사건이 특이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모범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홀버다가 성경본문을 단지 일반적인 규칙의 예화로 사용하는 것과 성경본문을 역사적 배경과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성경본문의 한 요소만을 설교하고 적용하는 것을 비판할 때 우리는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설교방법은 성경본문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적용을 비논리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으로 만든다. 동시에 트림프가 그 비평이 본문을 모범으로 사용하기를 금하지 않는다고 할 때 거기에도 동의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어떻게 교제하시느냐를 보여 준다.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를 묘사한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올바른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적 차이와 발전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모범이 될 수 있다. 성경 자체는 구약과 신약에서 기록된 사건을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인간의 행동이 모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신 문제는 그 사건과 행동이 어떻게 모범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일반적 규칙을 기억해야 한다. 즉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대로 성경본문을 설교해야 한다. 즉 성경 속에서 사건의 제시는 설교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성경적 사건의 모범적 이용은 성경본문에서 나와야 하겠다.

5. 하나님의 모범적인 행동

일반적으로 모범이란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행동에 국한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자신의 백성과 어떻게 교제하시느냐 하는 역사를 묘사한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나오고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해서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록된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사건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한 특징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²²⁾ 다시 말하자면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은 이같은 하나님의 행동을 자주 기록했다. 우리는 레위기 9:10장에 기록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다. 성막이 최초로 사용된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다(레9:23). 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번갯불이 내려왔고 제물을 태워 버렸다(9:24). 이 행동은 하나님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 그때부터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 그 후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경우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된 첫날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행동으로 정말 그들 사이에서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나타남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는 모범적인 행동이었다.

또 그분의 번갯불이 제물을 태워 버리는 것도 첫날에만 일어났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보통 제사장은 그 불을 계속 보존해 가야 했다. 하지만 첫날에 하나님은 그의 번갯불로 태워 버리는 모범적인 행동으로써 그가 백성들이 성막에서 바치는 제사를 받아 들이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같은 날에는 하나님의 번갯불이 두번 께로 내려왔다. 그때 두 사람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에 삼키워졌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후에도 사람들이 성막이나 성전

22) 우리는 하나님의 모범적인 행동이란 말을 다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나온다. 예를들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4:11, 참고:마5:48).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지 않고, 이 글에서 다루는 모범은 성경에 많이 나온다.

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칙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번갯불로 치시지 않았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벌은 모범적이었다. 즉 그것은 다시 일어날 행동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섬김으로 인하여 얼마나 분노하시는가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번 행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레위기 9, 10장에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이 행동을 중심으로 설교해야 하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것을 오늘의 우리 예배와 섬기는 행동에 적용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이 설명될 수 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옳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그때 웃사라는 사람을 궤를 만졌고 그 결과로 죽임을 당했다(6: 7, 8). 그 전에도 블레셋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궤를 이스라엘로 운반했고 아마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만졌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범적 행동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행동을 통하여 그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섬김을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다시금 사람의 측면에서 그 죽음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 죽이시는 것을 중심으로 설교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행동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대신에 궤를 어떤 블레셋 사람의 집에 두게 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방인과 그의 집 조차도 축복하셨다(6: 11). 성경은 그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한 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블레셋 사람의 믿음, 사람이 받은 축복과 같은 대지에 대해서 설교할 수는 없다. 이 본문의 목표는 하나님의 모범적 행동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모범적이라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범적 행동으로써 그분의 임재가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 전에 기록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룰 때 그 의미는 보다 분명해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위험한 것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할 변덕스러운 분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축

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위험하게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규칙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벌을 받게 된다.

이제 하나님의 모범적 행동에 대한 신약의 예 하나를 들어 보자. 사도행전 5장에 의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임을 당했다. 이 본문을 소위 모범적 방식대로 접근하면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즉 인간은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 있고 거짓을 범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벌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구속사적 입장으로 접근하면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의 특별한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오순절날부터 성령님은 교회에서 거하신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에서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 할 때 그들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다(5: 9).

여기에서 모범을 찾으려 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 행동은 모범적인 것이다. 그 후에도 많은 신자가 교회에서도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죽이실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이 교회에 거하시고 그분 앞에서는 죄가 가리워질 수 없음을 결정적으로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행동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유일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건으로서 그 행동이 모범적이란 것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설교는 오직 인간을 모범으로 제시할 때 유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적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설교는 항상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칼빈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쓸 때 그 사실을 잘 표현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은 다음의 것을 위해 소용된다. 즉 첫째로 우리에게 무서움과 존경을 가르치기 위한 것과 다음으로 그 지식을 우리의 안내자와 교사로 삼아 우리가 그분께 선한 모든 것을 요청하고 그분께 돌리기를 배우기 위함이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희가 그분의 피조물이므로, 창조의 권리에 의하여 너희가 그분의 주권에 주어지고 종속된다는 것과 또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그분께 빚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을 깨닫지 않으면서 너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느냐?'²³⁾

6. 인간의 모범적 행동

이제 모범적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할 때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적 행동 그 자체가 모범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3)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ii 2.

다만 인간의 행동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나오고 성경이 그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으로 제시할 때만 모범이 될 수 있다.

출발점으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해 보자. 아브람은 그때에 나이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 예언의 말씀을 덧붙이셨다. 아브람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브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행했는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15:6).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들이 태어날 것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 의하면 그것은 믿음의 한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지 않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살리셨다는 약속을 하신다(4:25).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아브람의 참된 자손이며(4:11),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신다(4:4,24).

아브람과 우리 사이에는 상황적으로 볼 때 일치가 없다. 우리는 아브람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다른 지위를 가지며 다른 약속을 받았다.²⁴⁾ 그러나 아브람과 우리 사이에는 구성적인 일치가 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로 일치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적인 것이다. 둘째로 모범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반응이 그것을 모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구약역사를 모범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다른 유명한 예는 고린도전서 10장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경고하는 모범이다(10:6~11). 하지만 그 인간적 행동이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역 아래서 모범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을 축복하셨다. 또한 그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영적 축복이었다(10:1~4).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신을 섬겼고 하나님에게 반항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으면서도 그들을 죽이셨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그분의 별 사이에서 경고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구약의 상태와 고린도교회

사이의 일치는 구성적인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광야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애굽에서의 해방이나 광야에서의 음식과 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교인들도 만약 그들이 그들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다른 신을 따라가고(10:14)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아야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다(10:22). 그 벌은 구약과 다른 형식으로 올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곧 올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볼 때 우리는 많은 구약신자들이 모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일치가 구성적이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다. 구약신자 사이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항상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들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구약신자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순종에 있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똑같이(10:36, 11:39, 40) 더 나은 본향 곧 하늘로 가는 중이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의 믿음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모범적일 수 있는나고 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구약 사람들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사이에는 단지 구성적인 일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때의 모범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단지 신약이 구약의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모범적인 것으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구약 자체도 어떤 사건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제정하셨고(창2:18), 성경은 그것을 우리 시대의 모범으로 제시한다(2:24). 그 상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는 부모를 떠나 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의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또 신약 자체도 신약의 사건을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무리에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모범으로 제시하셨다(눅7:9).

이 모든 경우에 인간의 모범적 행동이 설교에서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모범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7. 그리스도의 모범적 행동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적 사역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것이 모범적인 면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인격처럼 유일한 것이다. 그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와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또 그분의 사역도 우리가 할 수 있는

24) 여기서 필자가 아브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화목을 얻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창15장의 약속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신 것처럼 병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분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한다. 빌립보서 2:5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태도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사실 잘 읽으면 그가 보통의 한 인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리고 구원자로서 행하신 것이 모범이다. 그분이 모범이 된다는 사실은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급한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유일한 것이었다. 일치는 다시 구성적이며 그 일치하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차이점을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그 차이점을 고려한다. 우리는 우리의 차원, 우리의 상태에서 그분의 태도를 닮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행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행해야 한다.

같은 양식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에도 나온다. 마가복음 10:45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에 대한 모범으로 자신을 제시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신 봉사는 유일한 것이다. 성경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한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다한다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그 행위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신자들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이 있기를 원하신다.²⁵⁾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신자들도 섬겨야 한다. 교회에서의 위대함은 다스리는 위대함이 아니라, 섬기는 위대함이다. 다시 그 모범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에 있지 않다. 그 유사성은 구성적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차원에서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설교의 강조점은 택한 본문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단지 마가복음 10:45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사역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마가복음 10:41~45까지 설교할 때 설교자는 교회에서 목사와 신자의 임무와 위치에 대하여 설교해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규칙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40일 금식인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것인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모범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에게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당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금식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중 누가 금식으로 몸이 약해지면서까지 40일 동안 사단의

25) 이 유사성은 마20:28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유사성을 나타내는 $\omega\sigma\pi\epsilon\theta$ (~인 것처럼)라는 단어가 한국어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유혹을 자신에게 끌어들이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지 육적 힘이 없었지만 서까지 사단을 공격해야 할 그리스도의 임무이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이 어려운 시험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 하였고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가 당해야 했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나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죽기까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에 대응해야 한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사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또 설교하면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모범으로 언급할 수 있다.

스킬더(K.Schilder)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장교와 사병의 비유를 사용했다.²⁶⁾ 이것은 좋은 비유라고 생각된다. 사병들은 행진할 때 중대 속의 자기 위치에서 가고 장교는 그들 옆에서 인솔해 간다. 장교와 사병 사이에는 위치와 임무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또 사병은 장교와 같이 행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장교의 특수한 일은 사병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 사병은 장교와 같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장교를 따라가야 하고 그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병은 장교와 다른 것을 행하면서도 그 장교처럼 행함으로써 그의 본을 받게 된다.

8. 예 화

exemplum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때의 의미는 단지 예화(illustration)이다. 모범과의 차이는 이 경우에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표준적으로가 아니라 예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예증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느헤미야 13 장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실이 나온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를 말했다. 즉 첫째로 그는 신명기 7:3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러한 결혼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했다(느13:25). 다음으로 그는 솔로몬 왕의 경우를 예로 든다. 솔로몬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방인 여자는 그 왕조차도 범죄하게 만들었다(느13:26). 이 예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항상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결혼이 잘못된 것임을 이미 신명기 7장에서 나온다. 다만 솔로몬 왕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26) K.Schilder, *Christus en Cultuur* 5. ed. (ed. J.Douma; Franeker: Wever, 1978) p. 43.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노아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취해서 옷을 벗었다(창9:21).²⁷⁾ 창세기 9:20~27을 읽으면 이 노아의 행동에 관련된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본문은 함의 행동과 그가 받은 벌, 그리고 썬과 야벳이 받은 축복을 강조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죄는 단지 언급된 사실이며은 사건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술을 마시는 일의 위험성에 대한 설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노아가 취한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예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행동이 죄란 사실은 기록된 이야기 속에는 전혀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 될 수는 없지만 목사는 이 불문을 가지고 술 마시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할 수는 있다.

다른 예는 아브람의 거짓말에 대한 창세기 12:10~20이다. 본문은 한 번도 그 거짓말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지 않는다. 물론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그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래와 아브람을 구하신 사실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인간의 거짓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브람이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에서 아브람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곁들여서 언급할 수 있다.

스킬더(H.J. Schilder)는 이러한 종류의 예로서 룻기 2:4을 제시한다. 보아스는 자기의 일꾼과 인사하면서 주인과 일꾼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항상 기독교인인 주인과 일꾼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이어야 함을 설교자는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스킬더에 의하면 이것이 본문의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주인과 일꾼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다.²⁸⁾ 그래서 룻기 2:4을 가지고 주인과 일꾼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됨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예화로써 보일 수는 있다.

스킬더는 같은 글에서 또 다른 좋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인간 안에 행하실 때 모범을 보이셨다. 그분은 매일 그렇게 행하시는데 단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된 목적은 이러한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²⁹⁾

27) 필자는 이 예를 C.Trimp의 글에서 인용했다. C.Trimp 구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설교 작성법, 고려신학보 제13집, 교신대학 신학대학원, 1987, pp. 265f.

28) H.J. Schilder, *Richteren en Ruth: Een Vacatur Vervuld* (Kampen: Kok, 1982) p. 69.

29) Ibid, p. 69.

그래서 예화는 굳이 성경의 예화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우리 주위에서도 순종이 나타나고 죄의 결과도 나타난다. 성경의 진리를 예로써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정말로 일어난 사실일 때 한해서 그 사건이 진리를 위한 예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화에 대한 결론은 성경에 나온 사건도 예화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그 사건이 본문의 요소에 불과하며 본문의 의도가 아닐 때 설교자는 그 사건을 설교의 주제로 사용할 수는 없다.

II. 결 론

우리는 성경을 본문의 강조대로 설명해야 하고 또한 설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사건에 대한 여러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역사적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 행동을 설교에서도 강조해야 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 다른 본문이 인간의 행동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교인들에게 설교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행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보여 주지만 어떤 때는 모범적인 요소도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유일한 행동을 강조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또 자주 본문에는 예화로써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다. 그런 것은 본문에서 평가 없이 언급되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서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반적인 규칙은 성경의 제시가 어떤 모범적인 기능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설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동시에 아주 좋은 일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대로 설교해야 하며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는 일은 설교자의 무거운 책임이며 동시에 그의 직분의 영광인 것이다.